

제 목	국 문	1995년 콜레라 유행에 대한 역학 조사	
	영 문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n Cholera Ourbreak in 1995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조병륜, 이종구, 박기동, 김재룡, 구남훈, 이해국, 김동진, 김호훈, 임현술, 홍윤철, 오희철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역학조사과, 동국의대, 인하의대, 연세의대	
	영 문	BR Cho, JK Lee, K Park, JR Kim, NH Koo, HK Lee, DJ Kim, HH Kim, HS Lim, YC Hong, HC Oh <i>Min. of Health & Welfare, Dong-Kook Univ. Inha Univ. Yonsei Univ.</i>	
분 야		발 표 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1월		
<p>1. 연구 목적</p> <p>보건복지부 방역과에서 발간하는 급성전염병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근 콜레라 유행은 63~64년(환자 433명 38명 사망), 69~70년(환자 1,744명, 사망 149명), 80년(환자 145명, 사망 4명), 91년(환자 113명, 사망 4명)의 5차례 있었다.</p> <p>91년 콜레라가 전세계적 유행한 뒤 환자 발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지역은 오히려 확산되어 95년 9월 현재 WHO가 공식적으로 밝힌 콜레라 오염지역은 60개국이다. 또한, 94년부터 북한 지역에서 콜레라가 창궐한다는 정보보고가 있었으며, 매년 동남아시아 여행객들 중에서 콜레라 환자 또는 보균자가 보고되는 상황이었다.</p> <p>95년 9월 5일 경상북도 포항지역에서 해외 여행 경험이 없는 87세 여자 환자가 진성 콜레라 환자로 밝혀진 이후 16일 동안 전국적으로 68명의 콜레라 환자가 보고되었다.</p> <p>보건복지부에서는 콜레라 유행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환자 발생 지역에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p>			

2. 연구 방법

각 지역마다 1회의 역학조사로 충분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회 이상 역학조사반이 파견되었다. 산발적으로 5명의 환자가 발생한 포항은 국립보건원팀과 동국대학교팀이 교대로 파견되었으며, 강화지역에는 국립보건원팀과 연세대학교팀이 인천지역에서는 국립보건원팀과 인하대학교팀이, 강원도지역에는 국립보건원팀과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팀이 파견되었다.

각 지역마다 첫 보고된 환자이전에 index patient와 추가 환자 또는 보균자 파악에 주력하면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 환경 가검물 채취와 주변 자료 조사를 하였다.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을 거쳤다.

3. 연구결과

분리된 콜레라균은 모두 *Vibrio cholera* O1 El Tor Ogawa 형이었다.

강화도, 인천에서 발생한 환자와 천안의 음식점 피로연 참석객들 사이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강화도 지역 갯벌에서 채취한 어패류가 공통 오염원으로 추정되었다. 강화도 지역 해안의 환경 가검물에서 같은 종류의 콜레라 균이 분리되었다. 결혼식 피로연과 무관한 충남의 환자 1명과 포항의 콜레라 환자는 각각 충남 보령시와 포항시 인근 바닷가, 강변에서 채집한 어패류가 콜레라균에 오염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환경 가검물에서 균이 분리되지는 않았다.

4. 고찰

95년의 콜레라 유행은 단기간내에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있었으며 단기간내에 유행이 종료된 것이 특징이다. 8월 하순에 전국의 해안선이 부분적으로 콜레라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의 원인은 그 시기에 발생한 홍수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오염원은 콜레라오염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무증상감염자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에서 분리된 콜레라 균의 혈청형과 동남아 여행후 발견된 해외 유입 환자의 혈청형이 동일하였다.

콜레라균 중에서 El Tor형은 고전형에 비해서 무증상감염자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동남아로 관광을 다녀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의 무증상감염자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적인 콜레라 유행이 종식되기 전에는 이들에 의한 국내 콜레라 발병 위험성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보건복지부의 우선 해결과제로 판단된다.